

# 순천만습지 주변 '철새 쉼터' 조성

### 육계농장 2곳 상반기 보상마치고 하반기 철거 국비 22억 확보...조류인플루엔자 원천 차단

순천시는 순천만 철새도래지 주변 기금농장 2곳을 철거하고 철새 서식지로 복원한다고 밝혔다. 순천만 주변은 주민 건의로 2018년 환경부 동천하구 습지개선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순천만 갯벌과 제방을 사이에 두고 14만 여 마리를 사육하는 육계농장 2곳이 습지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다. 순천시는 환경부로부터 국비 22억 지원받아 총 사업비 25억원으로 올해 상반기에 보상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환경 저해시설을 철거

하고 철새 쉼터를 조성해 철새 서식지의 질을 높여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관계자는 "국토환경의 녹색복원으로 생태계·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야생조류의 안전한 서식지 확보와 고병원성 조류독감 전파 가능성 방지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사례에서 보듯 우리 야생생물과 인간의 경계 관리가



순천만 기금농장 주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탐사르 습지도시 순천의 습지복원 사업은 안전한 생태관광지 확대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순천형 그린 뉴딜 사업이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 주변은 연안과 내륙습지가 연결된 순천만·동천하

구 습지보호지역으로 총 면적 33.656km<sup>2</sup>로, 흑두루미를 비롯한 총 252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국내 최대 멸종위기 조류 서식지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여수시 국가산단 중흥2지구 사업 2021년까지 복합산업단지로 개발

여수시가 중흥동 일원에 산업단지 종사자와 주변 관광자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있는 중흥 2지구 산단 조성사업이 내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중흥 2지구는 흥국사 저수지 인근 약 2만 9천 평의 부지에 2021년까지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완공할 계획이다. 여수국가산단과 연계한 연구, 첨단소재, 물류, 제조, 편의시설 등 기업 지원시설의 복합 산업단

지로 개발된다. 또한 현재 중흥2지구 여수국가산단 조성공사 준공을 위한 토지보상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12월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시는 2018년 11월부터 토지 74필지, 3만 3천m<sup>2</sup>에 대해 보상 협의를 착수해 현재 93% 보상이 진행됐고,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미보상한 토지는 9월 중 수용재결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 광양소방,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콜센터' 운영

광양소방서(서장 송태현)는 보유 중인 소방시설 점검 장비를 관계인에게 무료 대여해 자체점검을 정착화하고 소규모 건축물의 소방시설 가동상태를 높이고자 '소방시설 안전관리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1회 이상 소방시설 등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운영규모가 작은 대상들은 자체점검에 필요한 점검 장비를 갖추기가 힘들어, 그동안 관계

인은 작동기능점검을 육안점검에 의존하고 구매 비용 부담으로 소방시설 점검 장비의 사용이 어려웠다. 소방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소방특별조사용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한다.

현재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는 광양소방서 4개 안전센터(중마, 광양, 금호, 광영)에서 운영한다.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전화로 상담 및 신청을 하고, 센터를 방문해 사용법을 교육받은 뒤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대여 장비는 열·연기감지기 및 방수압력측정계, 전류·전압 측정계, 절연저항계, 음량계 등 5종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광양센트럴자이' 704가구 계약 완료

### 청약 46.12대 1 경쟁률 기록...광양시 역대 최고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1-2블록에서 선보인 '광양센트럴자이'가 계약 4일 만에 계약 완료에 성공했다. 전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공급된 자이(Xi) 브랜드 아파트로

인기가 전남 지역에서도 증명되었다는 것. '광양센트럴자이'는 지난 6월 29일부터 계약을 진행한 결과 7월 2일부로 704가구 모두 주인을 찾았다. 지난 6월 청약 받은 '광양센

트럴자이'는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42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9,741명이 몰리며 평균 46.12대 1을 기록했다. 전 주택형이 모두 해당지역에서 마감됐으며, 광양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광양센트럴자이'의 성공 요인으로 자이(Xi) 브랜드의 프리미엄과 우수한 상품성, 다양한 개발호재와 인프라 등을 꼽았다. '광양센트럴자이'는 광양시 중심인 중마동과 인접해 중마동의 기존 생활 인프라를 공유

할 수 있다. 분양관계자는 "전남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자이(Xi) 브랜드가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으로 성황리에 계약까지 마무리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광양시는 노후아파트 비율이 높아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 하려는 수요자들이 많았으며, 304세대가 선호하는 평면 구성이 인기에 작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센트럴자이'의 입주예정일은 2022년 8월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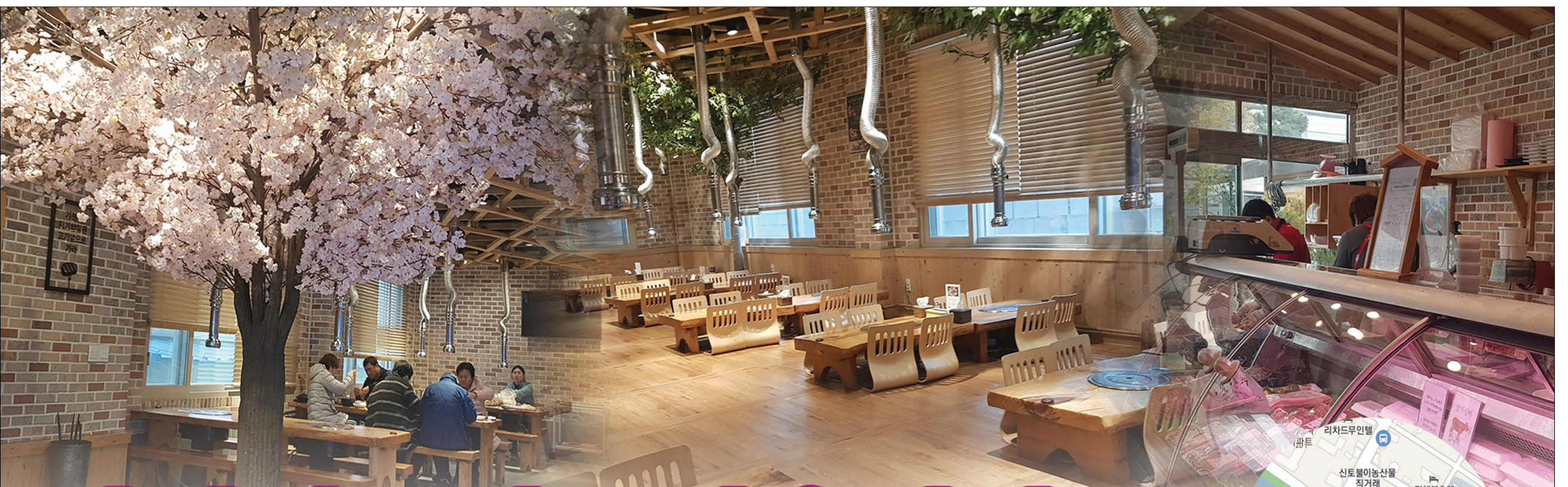
## 고흥 감재민속전시관, 무인 전시안내 설치

### 콘텐츠 활용 고흥의 전통 민속문화와 관광정보 제공

고흥군은 고흥의 전통 민속문화를 보다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건립한 고흥 감재민속전시관 내에 무인 전시안내 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인 전시안내 단말기는 고흥 감재민속전시관 관람 안내 및 소장 유물 소개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관람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편의 제공을 통해 관람객 증가를 꾀하였다. 또한 이미지를 통해 고흥 분청문화박물관과 조정래 가족문화관 등 부대시설의 시설 위치와 정보를 살펴볼 수 있으며, 고흥군 문화재와 관광정보를 연계하여 고흥군을 찾는 관람객들이 손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였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무인 전시안내 단말기 설치를 통해 관람객들이 고흥의 전통 민속문화와 관광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고흥 감재민속전시관 내 전시와 체험 관련 콘텐츠 등을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고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

